

# '원 팀' KIA, 무서울 게 없다



KIA 타이거즈가 부상이라는 변수와 불펜의 온도차에도 끈끈한 팀워크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일 KIA 선수단이 NC와의 홈경기에서 승리한 후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주축 선수 잇단 부상·불펜 온도차에도 선·후배 끈끈한 팀워크로 '1위 질주'



KIA 타이거즈가 '원팀'으로 우승을 향한 질주를 이어간다. KIA는 시즌 시작 전부터 투·타 밸런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승후보'로 꼽혔다. 뚜껑을 열어본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약점도 생겼고, 예상보다 더 큰 감점도 눈에 띈다. 일단 예상치 못한 약점은 '부상'이다. 트레이닝 파트를 재정비한 KIA는 '부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해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그리고 큰 부상 없이 성공적으로 캠프가 마무리되면서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커졌다. 하지만 실전에 돌입하면서 경기 도중 부상자가 이어지면서 KIA는 다시 또 '부상 병동'이 됐다. 주축 선수들이 잇달아 이탈한 가운데 투수진의 부진도 KIA의 발목을 잡았다. 부상이라는 최악의 변수와 불펜의 온도차에도 KIA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팀'이라는 전력이 생각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후배, 투수·야수 상관없이 하나가 돼 경기 자체를 즐기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KIA의 또 다른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NC전 승리에도 '원팀'이 있었다. 이날 KIA는 1회 아쉬운 쓰리피트 판정 논란 속 선취점은 내줬지만 9-2 역전승을 거뒀다. 이우성이 5회 상대 선발 하트를 상대로 스리런을 날리면서 경기 수훈 선수가 됐다. 시원한 3점포를 터트렸던 이우성은 경기가 끝난 뒤 승리의 주역으로 최지민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날 최지민은 휴식조로 경기에서 나서지 않았지만 이우성의 설명은 이랬다. 이우성은 "내가 홈런 친 3경기에서 팀이 졌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경기장

에 출근했는데 지민이가 내 가드를 닦아 놓았다. 거울에 같이 훈련하고 그랬었는데 지민이가 '오늘 형이 잘했으면 좋겠다. 맨날 도움만 주시는데 오늘은 내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민이한테 장난삼아서 오늘 형이 꼭 홈런 하나 치겠다고 했는데 진짜 홈런이 나왔다"며 "지민이가 가드를 닦아준 게 너무 고맙다. 별것 아니지만 하루 시작이 좋았다"고 최지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지민은 "매일이라도 닦아줄 수 있다"고 선배의 감사 인사에 답했다. 최지민은 "우성이 형 가드가 의자에 올려져 있었는데 조금 더러웠다. 원래 닦는 게 좋아해서 닦아드렸다. 경기 쉬는 날이라 덕아웃에서 경기를 봤는데, 내가 닦아준 것도 있고 잘했으면 좋

겠다고 응원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홈런이 나왔다"며 "(김)도영이 것도 닦아줬는데 도영이도 잘 했다. (댈)주라고 하면 매일 닦아주겠다"고 웃었다. KIA의 끈끈한 덕아웃 분위기는 그라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우성은 "득점권 찬스에서 못 치고 라커에서 열 받아서 있는데 (박)찬호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찬호도 경기 경험이 많이 쌓였고 많이 신뢰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런 부분이 고맙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고맙다"며 "1루에서도 계속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아직은 상황판단이 잘되지 않는데 앞에서 (김)선빈이 형이 많이 알려준다. 공 하나하나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 나중에는 선빈이 형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게 경험 잘 쌓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 황선홍-신태용 '파리행 외나무다리'서 만난다

## 26일 AFC U-23 아시안컵 8강 한국-인니 '한국인 감독'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 축구의 전설'거리 및 대결이 성사됐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황선홍 감독과 인도네시아를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이 '파리행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황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2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조별리그 3전 전승을 달성한 황선홍호는 우승 후보로 꼽힌 일본을 누르고 B조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A조 2위를 차지한 '신태용' 인도네시아와 한국시간으로 26일 오전 2시 30분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8강전을 펼친다. 조별리그 일정이 먼저 끝난 인도네시아는 A조에서 2승 1패를 거둬 강호로 꼽히던 호주(2무 1패)를 누르고 8강행 티켓을 따냈다. 올해 처음 AFC U-23 아시안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조별리그까지 통과하며 역대 처음으로 8강 무대까지 올라서는 기쁨을 맛봤다. 신 감독은 황 감독의 국가대표 사령탑 '선배' 격 지도자다. 지도자 생활을 더 빨리 시작한 건 황 감독이다. 1968년생으로 신 감독보다 2살 더 많은 황 감독은 2003년부터 코치 생활을 했다. 신 감독의 지도자 경력은 2005년 시작했다. 2년이 늦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서 경험은 신 감독이 훨씬 풍부하다. 2014년 대항 신분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끈 신 감독은 연맹 대표팀을 지휘하다가 2017년 A 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부임,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을 책임졌다. 2021년부터 연맹 대표팀을 이끌어 온 황 감독

한국인 축구지도자 황선홍-신태용 비교		
4월 26일(한국시간) 오전 2시 30분 U-23 아시안컵 8강전(한국vs인도네시아) 예정		
황선홍		신태용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감독
1968년 충남 예산	출생	1970년 경북 영덕
2003년 시작	코치 경력	2005년 시작
2021년 U-23 감독	한국 국가대표팀 주요 감독 경력	2015년 U-23 감독
2024년 A팀 임시감독 겸임		2017년 A팀 감독
B조 1위, 3승 0패	2024 아시안컵 조별리그 성적	A조 2위, 2승 1패
vs UAE (1-0) 승		vs 카타르 (0-2) 패
vs 중국 (2-0) 승		vs 호주 (1-0) 승
vs 일본 (1-0) 승		vs 요르단 (4-1) 승

사진: 김인철·김도훈 기자

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임시 사령탑' 신분으로 지난달 A 대표팀 2경기를 맡았다. 사실 신 감독은 8강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을 만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이기면 조국에 아픔을 안기고, 지면 현재 소속팀인 인도네시아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 8강에서 패하는 팀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된다. 이번 대회는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이다. 3위까지는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공짜 받는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4강까지는 가야 올림픽 본선행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그보다 아래 순위라면 빈손으로 돌아가 오는 7월 파리에서 열리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한다. 8강에서 만난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은 외나무다리에서 떨어지게 된다. 8강에서 짐을 싸기엔 두 팀 다 이 대회에 걸린 게 많다.

황선홍호는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위업을 이루고자 한다. 이번에 파리행 티켓을 놓치면 1984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는 불명예도 안는다. 인도네시아도 4강에 오르면 본격적으로 올림픽을 꿈꿔볼 수 있게 된다. 인도네시아 남자축구가 마지막으로 올림픽 본선에서 경쟁한 건 무려 68년 전이다.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면 인도네시아 축구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사건일 터다. 전력만 보면 황선홍호가 훨씬 강하다. 아시아 최고 수준인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부분인 황선홍호에는 정상민(미네소타), 김민우(뒤셀도르프) 등 실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밖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다. 대부분 자국 리그 선수인 인도네시아는 신 감독의 지도력에 기대를 건다. 신 감독이 어느 지도자보다 한국 축구를 잘 안다는 점도 인도네시아에는 호재다. /연합뉴스



## 안타, 어떻게든 만든다...이정후 13경기 출루

### 메츠전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뛰어난 타격 기술을 과시하며 13경기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홈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82에서 0.284(88타수 25안타)로 조금 올랐다. 출루율도 0.337에서 0.343으로 상승했다. 샌프란시스코가 2-0으로 앞선 3회말 무사 1루, 이정후는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에서 메츠 왼손 선발 투수 호세 키타나의 시속 123km 슬러브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바깥쪽으로 달아나는 슬러브를 탁월한 배트 컨트롤로 맞혀내는 장면이 현지 중계진은 "완벽하게 제구된 공을 정타로 만들었다. 우리가 이정후에게 주목하는 이유"라고 감탄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초로 MLB 데뷔 시즌에 11경기 연속 안타를 친 이정후는 22일 2타수 무안타 2사사구로 '연속 안타 행진'은 멈췄다. 하지만,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부터 시작한 연속 출루는 23일까지 13경기째 이어갔다. 코리안 배커의 데뷔 시즌 최장 연속 경기 출루 기록은 2015년 강정호(당시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달성한 17경기다. 이정후는 강정호의 기록에 4경기 차로 다가섰다. 이정후는 3회 및 4회말의 좌익수 쪽 2루타 때 홈을 밟아 시즌 13번째 득점도 했다. 7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 이정후는 손 리드-폴리로부터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 멀티 출루(한 경기 두 번 이상 출루)에 성공했다. 이날 이정후는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는 치지 못했다. 1회와 5회에는 1루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메츠에 5-2로 승리했다. KBO리그에서 이정후에게 15타수 무안타로 매우 강했던 브룩스 레일리(메츠)는 왼쪽 팔꿈치 염좌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라 둘의 MLB 첫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